

아... 맛다

조윤성

일요일 저녁에 우리 가족이 다 자다가 저녁 밥을 먹어야 하는데 계속 자서 내가 깨웠다.
그래서 엄마는 장보러 가고, 아버지는 자다가 핸드폰을 보다가 요리하러 가시고,
나는 놀다간 내려가서 밥상을 차렸다.

동생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손을 씻고 밥을 먹었다.



그런데 뽕가루를 잊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먹고 있었다.

근데 엄마가 말하셨습니다 밥은

"윤성아 우리 떡볶이 먹자고 했는데 까먹었다."

"아... 맛다"

엄마가 숙이더 다음에 먹자고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게 맛있다.

내 떡볶이!!!!!!

그리고 뽕가루를 보고 있다.

하... 왜 그게 생각이 안 나을까

자기전에 과자를 먹고 다시 씻고 잤다

왠지 모르게 계속 짜증이 났다